



전고점 뚫은 KB와 신한. 실적 차별화도 더 커질 전망

은행 Weekly | 2026.7.13

Analyst 최정옥, CFA cuchoi@hanafn.com

RA 정소영 soyoungjung@hanafn.com

전주 주요 뉴스 기사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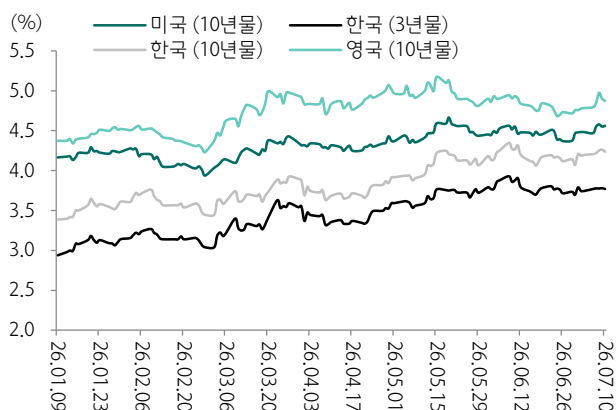
- 내년부터 변동형 대출의 지표금리로 사용돼 온 코리보가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되면서 금융당국이 금융권의 대체 지표금리 전환 작업을 본격 점검. 특히 코리보 기반 대출 비중이 높은 기업은행은 대규모 대출을 순차적으로 다른 금리 체계로 변경 예정
- 가계대출 규제 강화 속 기업금융 등으로 눈을 돌려 포트폴리오 재편에 나선 시중은행들은 일부 개인예금 이탈에도 끄떡없는 모습. 반면 개인 예·적금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저축은행은 연 4%대 상품을 잇달아 출시하며 자금 이탈 방어를 총력
- 대신과 KB·하나저축은행 등이 홈플러스 점포를 기초자산으로 한 부동산투자회사(리츠)에 대한 투자와 후순위대출 규모가 약 500억원인 것으로 파악. 특히 지분 투자금은 회수 가능성이 낮으며, 후순위 대출 역시 손실 가능성이 높다는 게 시장의 평가
-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정부 지시로 보류했던 자산 매각 작업을 재개. 최근 정부가 자산 매각을 일부 허용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기업은행은 보유 중인 한국투자금융지주 주식 6만 2,300만주(0.11%)를 매각하기 위한 사전승인 절차를 밟는 작업에 착수

Valuation, Performance 및 투자주체별 매매 동향

(2026년 7월 10일 종가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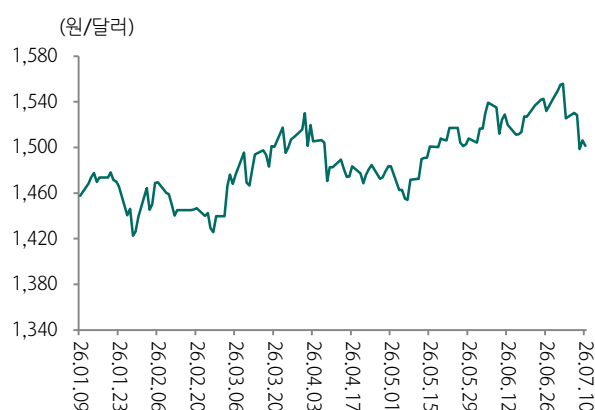
	PBR (2026F)	PER (2026F)	ROE (2026F)	ROA (2026F)	Mkt. Cap. (bil.)	Performance (%)				Weekly Net Buy (십억원)			
						1W	1M	3M	YTD	국내기관 (연기금)	외국인	개인	
KOSPI	1.74	7.7	22.7		6,118,604.3	-7.6	-7.7	27.6	77.4	793.6	10.1	-4,404.6	3,369.7
은행	0.72	8.4	9.0	0.64	216,573.2	3.5	10.1	6.6	32.0	508.1	83.0	-245.3	-216.8
KB 금융	0.99	10.1	10.2	0.78	65,404.4	8.4	19.1	16.5	47.9	295.5	-9.8	-194.1	-98.7
신한지주	0.83	10.2	9.3	0.66	51,832.3	1.8	7.9	10.6	42.0	124.1	47.4	-52.2	-31.6
우리금융	0.56	7.2	8.2	0.52	22,898.4	2.3	4.8	-7.9	12.3	5.3	14.1	26.6	-31.5
하나금융	0.71	8.0	9.3	0.64	35,256.3	2.3	8.0	7.5	36.6	72.9	33.7	-44.2	-24.5
기업은행	0.45	6.0	7.6	0.55	16,945.3	-0.2	3.4	-4.9	1.4	-3.9	-0.3	20.3	-16.1
BNK 금융	0.48	6.4	7.7	0.53	5,539.3	-5.0	4.6	-3.3	12.5	5.6	-2.1	-3.4	-2.5
iM 금융	0.43	5.9	7.5	0.47	2,867.2	0.8	3.3	-1.3	14.8	2.2	0.9	3.6	-7.7
JB 금융	0.74	6.6	11.9	1.00	4,904.0	-0.4	0.6	-15.8	1.6	6.4	-0.9	-1.9	-4.2
카카오뱅크	1.53	19.0	8.3	0.72	10,926.1	2.9	-6.1	-9.3	6.0	-0.2	-4.7	21.6	-21.0
삼성카드	0.61	8.7	7.2	1.97	5,607.6	-2.9	6.7	-12.0	-13.4	0.1	-0.2	-2.6	2.5

최근 6개월 글로벌 금리 추이



주: 국고채 10년물 기준, 한국은 3년물과 10년물

최근 6개월 원/달러 환율 추이



주: 원/달러 환율은 종가 기준

전주 평가와 금주 전망

- 전주 은행주는 3.5% 추가 상승해 KOSPI 하락률 7.6%를 또다시 큰폭 초과상승. 전전주 17.6%p 초과상승에 이어 최근 2주동안에만 28.8%p 초과상승. 지난주 은행주 추가 초과상승의 배경은 1) 반도체업종 조정 양상이 지속되면서 타 업종들로 순환매가 발생하자 국내 기관들이 대거 은행주를 순매수하고 있고, 2) 국채금리가 추가 상승하면서 금리 모멘텀도 지속되고 있으며, 3) 원/달러 환율마저 1,500원선을 하회하는 등 수급 상황과 매크로 지표 모두 은행주에 우호적인 양상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 우리 예상대로 KB금융과 신한지주는 지난주 지난 2월의 직전 고점을 뚫고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 중. 전주 미국 국채금리는 이란 긴장 재고조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과 금리 인상 우려가 커진 6월 FOMC 의사록 발표, 여기에 6월 미국 CPI 발표를 앞둔 경계감 등으로 추가 상승.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4.56%로 한주간 7bp 추가 상승했고, 2년물 국채금리도 4.21%로 7bp 상승. 금주 금통위를 앞둔 국내 국채금리도 상승세 지속. 3년물 국채금리는 3.77%로 한주간 2bp 상승했고, 10년물은 4.23%로 3bp 추가 상승. 한편 원/달러 환율은 SK하이닉스 ADR 상장 기대감과 한일 외환당국 공조 가능성 등이 부각되면서 큰폭 하락. 1,498.5원으로 마감해 1,500원선을 하회했으며 한주간 31.5원 급락. 외국인도 지난주에도 KOSPI와 은행주를 각각 4.4조원과 2,450억원 순매도했지만 국내 기관은 KOSPI를 7,940억원 순매수한 가운데 은행주를 5,080억원이나 대거 순매수. 특히 KB금융과 신한지주를 2,960억원과 1,240억원 순매수해 국내 기관 매수세가 양사에 몰리는 모습이었음
- 전주 특징주는 KB금융. 주가가 8.4% 상승해 상승 폭이 가장 컸는데 한주간 자사주 매입이 1,250,000주(약 2,180억원)에 달하면서 자사주 수급 효과가 매우 컸기 때문(물론 자사주를 제외해도 국내 기관 매수세 큰폭 확대). 반면 신한지주는 국내 기관 매수세 확대에도 불구하고 추가 상승 폭이 1.8%에 그쳤는데 이는 전전주 대폭 초과상승한데 따른 부담 때문인 듯. 한편 연기금이 신한지주와 하나금융에 대해 순매수를 확대하고 있는 반면 KB금융은 이렇다할 매수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이유는 동일인지분한도(10%룰) 때문인 듯. 국민연금 수급이 KB금융으로부터 신한지주와 하나금융으로 대체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
- 6월 월중 NIM이 예상보다 낮아지면서 2분기 은행 평균 NIM 상승 폭은 QoQ +1bp에 그칠 것으로 전망.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은행들이 6월에 조달 규모를 선제적으로 늘리면서 조달코스트가 상승했기 때문으로 추정됨. 일부 은행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은행들의 2분기 NIM은 플랫(QoQ 0%) 예상. 반면 대출성장률은 6월에 예상보다 더 크게 늘어나 대출성장률은 예상을 상회할 전망. 따라서 순이자이익 추정치에는 큰 변화가 없을 듯. 한편 증권자회사 호조 등으로 KB금융과 신한지주의 2분기 실적 전망치는 기존 예상치를 상회할 가능성이 커진 반면 iM금융과 BNK금융 등 일부 중소형은행들의 경우는 2분기 실적이 기대치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 은행 채권트레이딩 손실과 캐피탈 주식평가손(코스닥 주가 부진) 발생 등이 예상되기 때문. 따라서 은행별 2분기 실적 차별화 현상은 예상보다도 더 커질 것으로 보임
- 금주 주요 이슈는 16일(목) 예정된 한은 금통위. 그동안 한은이 금리 인상 시그널을 지속적으로 보내온 만큼 채권전문가 모두 만장일치로 25bp 인상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목표치인 2%를 넘어섰고, 경제성장률과 환율 및 부동산 등 모든 측면에서 금리를 올릴 당위성이 충분하기 때문. 다음 추가 인상 시기는 10월이라는 의견이 대다수. 이미 시중금리에는 금리 인상 기대가 반영되어 있지만 3년 6개월만에 피벗국면으로 전환된다는 점에서 금번 금통위의 의미는 남다를 듯. 만약 금통위원 중 빅스텝(0.5% 인상) 주장이 나올 경우 시중금리에 추가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 15일(수) 예정된 금융위 정례회의도 주목할만한 요인. 만약 최종 결론이 나온다면 홍콩 ELS 과징금 환입이 2분기 실적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임
- KB금융 주가가 180,000원을 상회해 직전 고점을 뚫고 2026년말 추정 BPS 기준 1.0배에 도달. 지난 2월의 고점 형성 이후 약 5개월만인데 그동안 반도체업종으로 수급이 쏠리면서 PBR 1배 도달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음. 금리와 환율, 실적 측면에서 은행주는 추가 반등을 모색할 여지가 높고, 업종내 주도주인 KB금융의 추가 상승 현상이 은행주 전반에 투자심리 개선 요인으로 작용될 것으로 예상. 따라서 신한지주와 하나금융도 조만간 확연히 전고점을 상향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은행업종에 대한 투자 의견 비중확대 및 대형은행지주사 위주로 관심을 크게 확대해야 한다는 기존 의견을 계속 유지

주간 선호 종목 - 주간 단위의 단기 선호 종목으로서 당사 최선호 종목 및 중장기 선호 종목과는 다를 수 있음

KB금융(매수/TP 220,000원), 신한지주(매수/TP 135,000원)

- KB금융의 경우 증권자회사 이익 증가 폭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2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폭이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되는 분위기. 순익 2조원 상회 가능성 기대. 외국인의 국내 은행주에 대한 스탠스 변화시 큰폭 반등 가능할 듯
- KB금융과 더불어 신한지주도 2분기 실적 모멘텀 가장 양호할 전망. 손실사건 RWA 배제 승인시 2분기 CET 1 비율은 13.5%를 상회할 수 있을 듯. 2분기 중 원/달러 환율이 소폭 상승했지만 환율 상승에 따른 부정적 영향도 경쟁사들보다는 매우 제한적

Global Peer Table

(2026년 7월 10일 종가 기준)

	PBR (2026F)	PER (2026F)	ROE (2026F)	ROA (2026F)	Mkt. Cap. (bil.)	Performance (%)			
						1W	1M	3M	YTD
KOSPI	1.74	7.7	22.7		6,118,604.3	-7.6	-7.7	27.6	77.4
은행	0.72	8.4	9.0	0.64	216,573.2	3.5	10.1	6.6	32.0
KB금융	0.99	10.1	10.2	0.78	65,404.4	8.4	19.1	16.5	47.9
신한지주	0.83	10.2	9.3	0.66	51,832.3	1.8	7.9	10.6	42.0
우리금융	0.56	7.2	8.2	0.52	22,898.4	2.3	4.8	-7.9	12.3
하나금융	0.71	8.0	9.3	0.64	35,256.3	2.3	8.0	7.5	36.6
기업은행	0.45	6.0	7.6	0.55	16,945.3	-0.2	3.4	-4.9	1.4
BNK금융	0.48	6.4	7.7	0.53	5,539.3	-5.0	4.6	-3.3	12.5
IM금융	0.43	5.9	7.5	0.47	2,867.2	0.8	3.3	-1.3	14.8
JB금융	0.74	6.6	11.9	1.00	4,904.0	-0.4	0.6	-15.8	1.6
카카오뱅크	1.53	19.0	8.3	0.72	10,926.1	2.9	-6.1	-9.3	6.0
삼성카드	0.61	8.7	7.2	1.97	5,607.6	-2.9	6.7	-12.0	-13.4

미국

S&P 500	5.15	22.2	21.9	5.70	67,708.7	1.3	4.3	11.4	10.7
은행	1.70	13.4	12.6	1.09	2,299.4	1.2	8.3	10.2	7.2
Wells Fargo	1.56	13.4	12.8	0.99	266.7	1.9	6.3	2.7	-6.5
JPM	2.49	14.9	17.3	1.29	901.6	1.0	9.3	9.1	4.4
CITI	1.20	12.9	9.8	0.71	240.1	0.6	5.6	13.7	20.7
BOA	1.48	13.2	11.8	0.97	423.5	1.6	9.4	14.2	8.5
US Bancorp	1.56	12.2	13.0	1.17	97.2	1.1	10.8	13.1	17.0
PNC	1.67	13.4	12.8	1.26	101.2	1.0	8.3	14.8	20.7
BB&T	1.04	11.4	9.4	1.05	64.4	1.4	3.8	5.3	5.0

중국

상해A주지수	1.39	14.2	9.9	1.41	63,893.0	-1.0	0.7	1.3	0.7
은행	0.65	7.0	9.4	0.69	11,510.2	4.6	-4.9	0.8	-10.0
공상은행	0.63	7.1	9.1	0.68	2,476.0	4.1	-4.7	2.6	-7.6
건설은행	0.70	7.6	9.6	0.73	1,902.2	5.7	-4.4	8.5	8.1
농업은행	0.74	7.6	9.8	0.59	2,134.8	5.6	-7.2	-3.6	-18.9
중국은행	0.65	7.8	8.5	0.64	1,749.4	6.2	-5.0	4.5	1.0
교통은행	0.48	6.2	7.8	0.62	559.4	4.1	-2.3	-0.3	-8.8
초상은행	0.78	6.2	12.9	1.13	942.2	2.9	-2.6	-3.4	-12.4

일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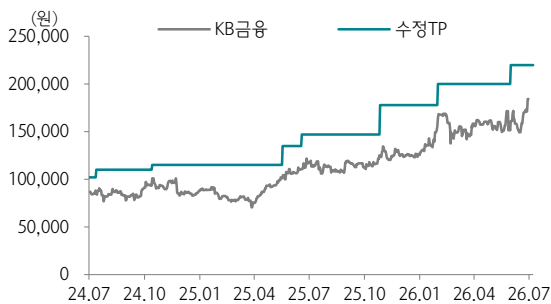
NIKKEI	3.00	23.8	12.3	4.33	1,047,718.9	-1.7	6.9	20.5	36.2
은행	1.50	15.5	9.5	0.48	141,329.1	2.7	8.7	20.2	40.6
Mitsubishi UHF	1.83	17.5	10.8	0.61	41,074.1	4.1	8.7	21.8	38.8
Sumitomo Mitsui Financial	1.67	16.4	10.8	0.61	26,080.6	2.1	9.4	23.1	35.2
Mizuho	1.84	17.1	11.4	0.43	20,292.6	2.8	9.1	22.4	45.7
Sumitomo Mitsui Trust	1.37	15.2	9.3	0.37	4,582.8	3.7	10.8	22.9	37.3

유럽

MSCI Europe	2.38	16.1	14.3	1.75	15,417.7	-1.7	4.1	6.2	8.6
은행	1.51	11.3	13.5	0.73	2,133.4	-0.2	13.2	15.2	16.3
HSBC	1.82	11.9	15.4	0.84	252.8	1.4	13.7	10.4	25.3
Santander	1.63	11.9	13.6	0.77	178.3	-2.3	16.2	16.8	20.5
BNP Paribas	0.91	8.6	10.8	0.45	110.9	-1.9	9.5	14.7	24.6
Credit Agricole	0.71	7.7	9.6	0.28	52.9	-1.3	7.2	8.9	-0.3
Deutsche	0.88	9.5	9.6	0.47	60.0	-1.1	16.5	17.6	-5.2
Unicredit	1.87	11.3	17.1	1.26	125.1	1.2	17.4	24.2	1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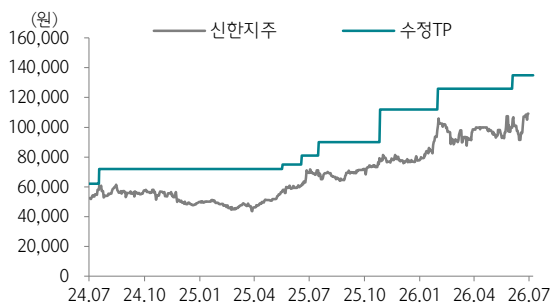
투자 의견 변동 내역 및 목표주가 괴리율

KB금융



날짜	투자 의견	목표주가	괴리율	
			평균	최고/최저
26.6.12	BUY	220,000		
26.2.11	BUY	200,000	-22.36%	-14.20%
25.11.7	BUY	178,000	-27.10%	-12.64%
25.6.30	BUY	147,000	-22.33%	-14.76%
25.5.29	BUY	135,000	-20.30%	-16.81%
24.10.25	BUY	115,000	-24.56%	-11.30%
24.7.24	BUY	110,000	-21.71%	-11.64%
24.7.4	BUY	102,000	-15.97%	-13.43%
24.3.21	BUY	93,000	-19.26%	-9.25%

신한지주



날짜	투자 의견	목표주가	괴리율	
			평균	최고/최저
26.6.15	BUY	135,000		
26.2.11	BUY	126,000	-23.65%	-14.68%
25.11.7	BUY	112,000	-28.27%	-12.59%
25.7.28	BUY	90,000	-22.66%	-12.00%
25.6.30	BUY	81,000	-15.96%	-11.36%
25.5.29	BUY	75,000	-20.53%	-18.67%
24.7.29	BUY	72,000	-27.80%	-14.72%
24.3.21	BUY	62,000	-23.07%	-6.45%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하나금융지주의 계열사입니다.
- 당사는 2026년 7월 13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이상 보유 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최정욱)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 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자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최정욱)는 2026년 7월 13일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들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조사항목은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투자등급 관련사항 및 투자 의견 비율공시

- 투자 의견의 유효기간은 추천일 이후 12개월을 기준으로 적용

기업의 분류

BUY(매수)_목표주가가 연주가 대비 15% 이상 상승 여력
Neutral(중립)_목표주가가 연주가 대비 -15%~15% 등락
Reduce(비중축소)_목표주가가 연주가 대비 15% 이상 하락 가능

산업의 분류

Overweight(비중확대)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 이상 상승 여력
Neutral(중립)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15% 등락
Underweight(비중축소)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15% 등락

투자등급	BUY(매수)	Neutral(중립)	Reduce(매도)	합계
금융투자상품의 비율	97.24%	2.76%	0.00%	100%

* 기준일: 2026년 7월 10일